

# 강원연구원 영동분원 강릉 설립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김현수 의원)

의안 번호	321
----------	-----

발의연월일: 2024. 1. 23.

발 의 자: 김현수 · 김기영 · 배용주 · 윤희주 ·  
김진용 · 김용남 · 허병관 · 조대영 ·  
최익순 · 김영식 · 김은숙 · 김홍수 ·  
이용래 · 김문섭 · 권순민 · 서정무 ·  
박경난 · 홍정완 · 신보금의원(19명)

## 1. 주 문

- 별첨 “건의문” 과 같음

## 2. 제안이유

- 수도권화 되어가고 있는 강원 영서지역과 달리 영동지역은 주요 사회 지표들이 하강추세로 이어져 강원도 영동~영서 간 지역 격차가 심각함.
-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간 실질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의 행정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동지역 밀착형 연구기관이 필요함.
-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강원연구원 영동분원의 강릉 설립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발전을 도모하고자 촉구 건의함.

## 3. 이송처

- 강원특별자치도, 도내 18개 시·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내 지방의회, 강원연구원

강원연구원 영동분원 강릉 설립  
촉구 건의문



강릉시의회

# 강원연구원 영동분원 강릉 설립 촉구 건의문

지난해 7월,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가 강릉에서 출범했습니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더불어 주요 사회지표의 하강 추세를 면치 못하는 강원 영동지역과 수도권과 인접하여 파급효과를 누리고 있는 영서지역 간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현재 강원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영동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영동~영서 간 균형발전을 이루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새로운 강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는 부족합니다. 영동~영서 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강원연구원 영동분원’이 바로 그 해답일 것입니다.

현재 강원연구원은 춘천에 소재해 있으면서,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미래 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재지의 물리적 환경상 영동지역의 연구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강원연구원 영동분원’을 영동지역의 수부도시인 강릉에 설립하여 영동지역의 현실에 맞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의 행정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원연구원 영동분원이 설립되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은 물론 영동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대학들과의 연계·협력으로 지역혁신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강원연구원은 이미 3년 전인 2021년 영동분원 설립 계획을 진지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강원연구원 영동분원’의 ‘강릉’ 설립으로 영동~영서 간 실질적 균형발전,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강원연구원은 3년 전 추진했던 영동분원 설립 계획을 조속히 재추진하라!

둘째,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는 강원연구원 영동분원 강릉 설립에 총력을 다하라!

셋째, 강릉시의회는 강원연구원 영동분원 강릉 설립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24. 1. 26.

강릉시의회